

체(syncytium)로 관찰 되어졌고 유두상의 세포 송이는 관찰되어지지 않았다. 핵은 과염색성으로 염색질이 뭉쳐 보였으나 뚜렷한 핵소체는 관찰되어지지 않았다. 조직검사상 상피층이 전체적으로 두꺼워지고 심한 이형성을 보이는 커다란 세포들로 피복되어 방광상피 내암으로 진단되었다.

## 12. 골반내 방선균증의 세포흡인 세포학적 소견

-1 예 보고-

### Fine Needle Aspiration Cytology of Pelvic Actinomycosis

-A case report-

순천향대학부속병원 해부병리과

김대중, 진소영, 이동화

Intrauterine device(IUD)를 오랜동안 사용한 여성에서 방선균증이 동반되는 경우는 사용자의 약 3% 정도라고 하며 이는 IUD가 자궁내막에 손상을 주어 actinomycosis가 쉽게 집락을 형성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때문이라고 한다. 저자들은 최근에 골반내 연부조직에서 발생한 방선균증 1예를 경험하였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본 환자는 39세 여자로서 약 10일전부터 발생한 빈뇨와 배뇨곤란을 주소로 내원하였으며 10년간 IUD를 사용하여 왔다. 골반 전산화 단층촬영 소견상 자궁의 전상부 및 방광의 상부전측부에 걸쳐서 크기가 4.5×4×4cm이며 주위조직과 경계가 불분명한 외장성의 연부종괴 소견이 관찰되어 방광암의 진단하에 세침흡인 세포검사를 시행하였다.

현미경 소견상 급성 염증세포, 거대다핵세포, 조직구 및 섬유아세포가 괴사물질을 배경으로 다수 관찰되어 농양의 소견을 보였으며 크기가 다양한 filamentous form의 방선균의 집락이 관찰되었다. 방선균증 진단하에 종괴를 포함한 방광의 부분 절제술, 부분 대망절제술, S상 결장의 분절 절제술을 시행하였으며, 종괴는 주로 방광의 좌측 천정부위의 외벽에 위치하였으며 방광벽은 매우 두꺼워져 있었으며 장막에 화농성의 삼출물이 피복되어 있었고 주위 대장에 유착이 심하였고 자궁은 정상이었다. 현미경 소견상 방광 외벽의 종괴는 육아조직을 형성하는 농양의 소견이 관찰되었고 중앙부에서 방선균의 집락이 보였다.

## 13. 간으로 전이된 자궁경부의 신경내분비암

### Metastatic Neuroendocrine Carcinoma of Liver from Uterine Cervix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병리학교실

김의정, 안희정, 이광길

34세 된 여자 환자가 20일간의 심와부와 우상복부 동통을 주소로 내원하였다.

환자는 과거력상 내원 4개월 전에 자궁경부의 신경내분비암, Ib기로 진단받고 근치적 복식 자궁적출술과 양측 골반부 림프절 청소술을 시행받았으며, 그 이후 5-Fluorouracil과 DDP로 3차례의 항암화학요법